

## 불란서의 기독교 문학과 전통사상

베르나르 위\*

이 재 룡 역\*\*

—

1920년, 어느 프랑스 비평가는 “문학은 오로지 새로움만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또한 문학은 연속성과 전통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라며 다음을 덧붙였다. “몽테뉴(Montaigne)에서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에 이르기까지, 비용(Villon)에서 베를렌느(Verlaine)에 이르기까지 불문학은 놀라우리만큼 새로와졌으나 항상 근본적인 원칙에 충실하였다.”<sup>1)</sup> 이 무신론적 비평가가 강변한 연속성과 전통 안에서 종교가 매우 중요하고 더 나아가 근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다시 말해 기독교가 대다수 작가들이 품고있는 지식에 대한 갈증과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이 가치가 부분적으로 그리스 로마의 고대인들로부터 이어온 휴머니즘과 조화롭게 일치되는 바, 작가들은 수세기에 걸쳐 작품과 문학사를 통해 종교적 영감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와 프랑스 전통이라는 각기 두 개념이 지니고 있는 복잡성, 또한 아직껏 전인미답의 상태로 남아있는 이 주제의 방대한 성격은 일단 접어둔다고 하자. 그러나 어떻게 만용의 우를 범하지 않고 전통과 종교라는 두 개념이 동시에 얽혀있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 프랑스 예술과 사상을 정의하고자 했던 발레리를 상기해 보자. “작품과 작가의 나열이나 연대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 프랑스 Haute-Bretagne 교수

\*\*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1) Pierre Lasserre, *Les Chapelles littéraires*, Paris, Plon, 1920, p.69.

다루려는 것은 헛된 일일 것이며, 밀도 끝도 없는 작업이 될 것이다. 낱자와 참고 문헌 그리고 몇몇 주석이 달린 작가나 제목의 목록이 전혀 실질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sup>2)</sup> 따라서 숭실대학교에서 영광스럽게도 본인에게 참석해 주기를 바란 학술 발표회의 목적을 감안하여 폴 끌로델(Paul Claudel)이라고 하는, 시대를 통틀어 위대한 기독교 작가 중 하나인 그의 기념비적 작품을 선정해 본질적인 예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피에르 라세르(Pierre Lasserre)는 발레리-라도(Valéry-Radot)의 관점을 요약하면서 1920년 이후에는 클로델의 지위가 더욱 견고해 질 것이라고 확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 詩는 끌로델(유독 그 혼자만은 아니지만)과 더불어 르네상스 이래 우리 문학에서 나타났던 모든 기독교의 시적 영감을 한 차원 뛰어넘어 새롭고 순결한 봉우리에 도달했다(...) 끌로델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신비만으로 상상력과 지성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시심의 자양분으로 삼은 과거 중세시대의 명상가와 시인들의 정신을 되찾았다. 그는 그 명맥을 이어받아 신의 숨결을 받아 활활 타오르는 초자연적인 불길 속에 문학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중세 종교시인의 문학작품 뿐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서는 기독교적 영감을 받지 않는 미구에 실현될 제시의 싹이 잠재해 있으며 뜨거운 생명수가 흐르는 사제들의 문학작품과 새롭게 혁신된 문학 양자간에는 독특한 유사성이 존재한다.”<sup>3)</sup>

상징주의에 뒤이어 과학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한 이십세기에 탄생한 그의 작품이 지닌 근본적인 기독교적 특성과 다양성, 풍부함에 비추보면 끌로델을 예로 선택한 것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이 학술회가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있는 또 다른 이유에 의해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 이는 동양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이며 또한 프랑스 전통 사상에 이 물음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특히 이십세기에 장시간 지속된 종교 논쟁에서 그 어떤 기능을 했는가라는 물음이다. 그런데 풍부한 여행을 한 시인이자 외교관인 끌로델은 대다

2) Paul Valéry, “Pensée et art français”, in *Regards sur le monde actuel*, Paris, Gallimard, 1945, collection idées, pp.174-175.

3) P. Lasserre, op. cit., pp.XVIII-XIX.

수의 동시대인들과는 달리 동양에 대한 언급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그는 아마도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20년) 작가일 것이다 (그는 물론 조용한 아침의 나라도 방문했다). 특히 강조해야 마땅한 부분이 있다. 즉, 종파 의식이 없지 않았던 카톨릭 신자에게 있어 언뜻 보면 의외이자 모순으로 보이는 점은 「동방의 이해(Co-nnaissance de l'Est)」의 작가가 동양과 그것의 문화, 풍습, 종교를 이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카톨릭 전통에 깊이 구속되었던 끌로델은 이와 동시에 아시아를 第二의 조국으로 삼아 시, 드라마, 비평을 통해 전통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었다. 물론 이 전통의 한 가운데에는 기독교의 가치가 제일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지만 동양문화에 속하는 가치들이 마치 음과 양이 어울리듯 상보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끌로델의 작품에 접근하기 전에, 끌로델이 죽은 (1955) 이후 세속 문명의 변화에 발맞추어 종교도 폐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독교 통합운동이 실현되면서 종교 분야에 개혁의 바람이 몰아친 금세기에서 그의 작품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개략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프랑스 전통과 불문학은 장시간에 걸친 역사적 귀결인 바, 그 기간을 대충 두 시간적 단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789년 까지 근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란서 혁명으로 부터 현재까지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중세기와 르네상스 그리고 고전주의의 시대(17-18세기)를 포함하는 시기에 모든 형태로 사상과 예술의 전개를 주관하였던 것은 정신과 가치의 안정성, 그리고 단일성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신의 산물은 로마교회와 보조를 맞추는 국가사업, 즉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적 가치에 종속되었다. 교조주의, 권위, 검열은 16세기의 종교개혁과 17세기의 포르 로 와이알(Port-Royal)이 입증하 듯 항시 누구나 잘 순종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단자는 곧 화형장으로 끌려갔던 프랑스는 자유의 나라, 특히 사상이 자유로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다.

1789년보다 훨씬 전부터 혁명을 준비해 왔던 것이 무엇인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사상적 측면을 보면 몽테뉴와 데카르트(Descartes)는 회의주의와 합리주의를 도입하여 종교나 스콜라 학파의 전통에 의해 세워진 단단한 기념비를 동요시켰다. 라블레(Rabelais)의 해학은 단순한 표면적 유희에 불과했다. 1789년은 결정적, 세속적으로 무신론을 확립시켰다. 차후 두 갈래의 길이 나란히 전개된다. 한 갈래는 연속성

안에 자리잡아 전통을 확고히 했으며 다른 새로운 갈래는 비평과 분석정신 그리고 과학과 기술적 진보에 우선권을 주면서 형이상학, 특히 종교에 단호히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정신은 신앙과 구원, 영생과는 무관한 새가치에 해당한다. 영혼은 “중세기의” 체계묵은 개념이 된다. 그렇다면 현대는 완전히 신에 무관심한 것인가? 신의 죽음을 외친 니체(Nietzsche)가 옳은 것인가?

20세기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대다수의 작가들이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개의 적대적 경향으로 정의된다. 가브리엘 마르셀(Gabriel Marcel)이 설파한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나란히 전개, 발전된다. 사르트르는 신없는 세계는 운명의 부조리한 비전만을 제시하므로 존재의 변명이 주어지지 않은 인간은 혼자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전통적 가치에 의해 유포된 낙관론을 불안과 절망으로 대체한다.

1868년에 태어난 끌로델은 르낭(Renan)과 더불어 가장 극단적 염세주의의 사도 쇼펜하우어(Schopenhauer)가 유해한 영향을 행사했던 위기의 시대에 고전적 인문 교육을 받았다. 19세기 부르조아 전통 교육을 받은 그는 과학만능주의, 유물론, 그리고 파괴적인 힘에 굴복하여 사춘기 초기에 신앙을 잃었다. 따라서 그는 전통과 현대라는 두 갈래의 길을 공히 경험한 작가인 셈이다. 훗날 끌로델은 스스로 16세기인이라 자처한다. 글을 쓰기 시작했을 무렵 그는 종교적인 것을 부정하거나 적어도 무관심한 현대인과 동일한 유형의 인간이었다. 무신론자였다가 회개한 파스칼은 신없는 인간의 엄청난 비참함을 보여 준 바 있다. 오래지 않아 끌로델 역시 자신이 살고있는 당시의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다. 끌로델이 랭보(Rimbaud)의 「일뤼미나시옹(Illumination)」을 읽은 다음날, 그러니까 1886년 크리스마스의 계시가 있었던 그때, 그는 짓눌려 쓰러지기 일보직전이었다. 교회에 대해, 그리고 자기 법칙에 대해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젊은이의 어려운 귀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종은 그를 절망에서 전혀 올렸고 가장 오래된 전통의 축에 그를 올려 놓았다. 차후 그는 이 길을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 가치와 덕성을 밝히는데 모든 작품이 바쳐질 것이다. 그는 표류자가 구명대에 매달리 듯 이 가치와 덕목에 견고히 붙들고 놓치지 않았다.

현대의 삶과 산업문명, 유물론, 과학적 비관론의 고통을 체험한 까닭에, 「도시(La

Ville)』의 작가 끌로델은 황금신의 숭배와 힘에 의해 지배된 유럽, 더 나아가 미국을 몹시 혐오했다. 1926년에 간행된 소논문 「동양-서양(Orient-Occident)」에서 폴 마송-우르셀(Paul Masson-Oursel)은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우리는 전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대중에게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물질적 갈증을 강요하면서 흡족해하고 있다. 그 물질적 갈증을 충족시키면서 치부를 하겠다는 계산 하에서 말이다” 그리고 예언자처럼 말하기를, “그러나 이 상업적 의도는 곧 어긋날 것이다. 협동의 식이 충만한 군중은 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제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하니 우리가 마치 우월한 문명의 상징인냥 여긴 그 악마주의 때문에 우리 모두 징계받으리라.”<sup>4)</sup> 20세기를 통해 동양은 그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경제학자인 끌로델은 현재의 서양문명이 순수한 악마숭배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그의 시는 비시대적인 것, 나아가 초시간적인 것으로 보이며, 영감의 주된 근원을 전통 속에서 찾는다. 고대인들로부터 전수된 휴머니즘으로 보강된 기독교적 가치와 더불어 전통은 기독교 세계의 순결성과 특수성을 간직하도록 끊임없이 자기보호를 했다. 이 세계와 병행하여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잘못 정의된 동양이란 용어로 지칭되는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동양이란 이미지는 지식인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들은 이로부터 상상력의 자양분을 공급 받았다. 프랑스의 이성은 야만의 세계를 복음화시킬 목적으로 정복하고자 하면서 모든 침략을 정당화시킨다. 유럽이 바깥의 국가들에 스스로 수임한 기능은 고로 카톨릭의 그것, 즉 정신적 정복이며 이교도에 대한 투쟁이다. 이는 19세기, 선교사들의 발자욱 위에 식민지화를 목적으로 군대를 투입한 것과 유사한 전망이 될 것이다.

동양은 (프랑스) 전통 사상을 구성하는 가치 중 하나를 지니고 있다. 기독교 자체가 그 발생에 있어서 동양적인 것에 기대고 있다. 문학은 동양에 바쳐진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19세기는 동양학의 르네상스처럼 보인다. 그리고 20세기, 끌로델의 세기는 전통주의자, 합리주의자 할것 없이 모든 프랑스 작가들이 동양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서 커다란 논쟁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다. 끌로델과 같은 카

4) Paul Masson-Oursel, “Orient-Occident”, in *La Nouvelle Revue Française*, janvier-juin 1926, t. XXVI, p.274.

틀릭 작가들의 입장이야말로 전통과 종교가 배합되면 무엇이 산출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다. 동일한 전통의 품안에 있는 동일한 종교는 다양한 의견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의 것을 입증한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의 만장일치를 보이기에는 커녕 역설적이지만 분열된 모습을 보여준다. 즉 경멸, 의심, 증오, 인종차별에 이끌려 그들은 기독교인이면서도 복음정신을 망각하고 백인 특유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보편적 인본주의에 관련된 철학적 논쟁을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 싸움판으로 변모 시킨다. 이 싸움에서 글로델의 역할을 알기 위해 그의 주위에서 나타나는 테제를 알아보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먼저, 극우파(Action Française) 지지자인 앙리 마씨스(Henri Massis)가 옹호하는 극단적인 테제를 살펴보자. 그는 다음과 같은 여러 작품과 소논문에서 이를 밝히고 있다: 「서양문화에 대한 아시아-게르만의 공격(L'Offensive germano-asiatique contre la culture occidentale)」, 「심판(Jugements)」, 「서양과 그 운명(L'Occident et son Destin)」, 「동양과 서양(Orient et Occident)」, 「서양의 방어(La Défense de l'Occident)」.<sup>5)</sup> 1924년 「동양의 부름(Les Appels de l'Orient)」이라고 하는 커다란 앙케이트를 촉발한 사람도 바로 앙리 마씨스였다. 그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동양에 대한 자신의 이론이 정초된 가정을 제시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종교품인 동양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우리에게 제시되는 낡은 서양의 오류인 것이다” 이어서 그는 그 근원이 대부분 게르만족이나 슬라브족, 다시 말해서 서양의 이단과의 접촉을 통해서나 겨우 생겨났을까 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모든 “거짓 아시아의 사상”을 고발하였다.<sup>6)</sup> 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순수한 기

5) Henri Massis, “L'Offensive germano-asiatique contre la culture occidentale” in *Journal littéraire*, Paris, 19 juillet 1924; *Jugements*, Paris, Plon, 1924; *L'Occident et son Destin*, Paris, Plon, 1925; “Orient et Occident” in *La Revue des Jeunes*, 1926, et in *La Revue Universelle*, tome XXVIII, n° 23, 1er mars 1927; “Mises au point”, in *Les Appels de l'Orient*, Les Cahiers du mois, 9/10, Paris, Emile-Paul Frères, éditeurs, février-mars 1925; *La Défense de l'Occident*, Paris, Plon, 1927.

독교 전통의 노선에서 이탈한 서양에 대한 유죄판결을 의미한다. 정신적 동양주의, 게르만 주의 그리고 슬라브 주의를 한 통속으로 몰아부쳐 그는 이 모두를 한꺼번에 폐기했다.

그는 동양사상을 어떻게 보는가? 그에 의하면, 이 사상은 “영원한 질서”<sup>6)</sup>라고 하는 것, 서양의 조락을 부추기는 모든 것을 먹고 산다. 이 사상은 “모든 종교적 착란의 신도들, 모든 유럽국가의 변절자들”에게서 그 지지자를 구하는 “타고르(Ta-gore)와 오카쿠라(Okakura)류의 사람들 그리고 간디(Gandhi)” 같은 사도들의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이 모인 결과 영웅적 용기도 없는 관조주의 아무 거리낌 없는 환영적인 종교심을 낳았다. 즉 삶으로 괴로와하는 모든 이에게 대해 무용지물인 동정심으로 치장되고, 가공할만한 천년신의 전설로 장식된 애매한 신비주의인 것이다. 냉소적이며 풍자적인 앙리 마씨스는 프랑스를 커다란 위협에 빠뜨리는 위험스런 선교에 열을 올리는 자들을 비난하면서, 이러한 사람을 동, 서양의 “신앙 딜레탄트”라 이름하여 참된 기독교인들과 대립시켰다. “그러나 서양의 합리주의를 흡수하여 괴상한 제설통합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이상주의가 접신론으로까지 타락한 이 혼탁한 선교는, 개인주의에 이끌려 모든 위계질서, 모든 신성한 관리를 배제하고, 이상야릇하고 다양한 종교적 경험이 차례로 유혹 당하는 거짓된 복음의 영혼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시대에 가장 커다란 위협을 주게될 과학과 물질이 아닌, 정신과 종교의 켜에 자리잡고 있다면, 이러한 정신아야말로 가장 기괴한 정신적 탈선에 빠져들 수 밖에 없도록 예정된 것이 아닐까?” 이렇듯 로마교회에 의해 보장되고 유지된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합일, 독단론, 질서로 형성된 전통적 가치와, 마씨스가 단지 지적이고 도덕적인 카오스만으로 간주한 내재설, 범신론, 인종적 신비주의, 천성, 삶, 비합리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아시아적인 가치가 대치된다.

노골적으로 고비노(Gobineau)의 이론에 의거하여 로마 카톨릭 공동체에만 한정된 서양을 열렬히 옹호하는 그는 참된 동양정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동양정신이 서양정신을 소멸케하는 데 일조한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불쇄비즘과 게르만주의에 대

6) H. Massis, “Mises au point”, in *Les Appels de l'Orient*, op. cit., p.31.

7) H. Massis, “Orient et Occident”, in *La Revue Universelle*, n° 23, 1927, p.536.

한 증오심에 눈이 멀어 편협하고 당파적인 그의 주장은 격양된 국수주의를 옹호코자 했으며 그 국수주의가 다다른 최악의 결과는 누구나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전통과 기독교주의는, 카톨릭 역사가인 르네 케농(René Guénon)이 「동양과 서양」이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동양과 서양 사이의 가능한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개념을 낳았다. 이 논문에서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정치나 시사가 아니라 이념과 교리였다. 그는 당시대의 논쟁과는 거리를 두는 한편, 의도적으로 마쉴스 이론의 약점을 꼬집는 바, 자신은 “동양식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하다”고 자처하면서 현대 서양 철학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동양의 진실한 정신과 현명함에 만족을 표하였다. 케농은 가장 훌륭한 전통적인 사도였다(…) “도처에 사는 모든 대중의 전통 속에서 사람들은 속세의 시선에 숨겨진 영적 중심의 존재를 확신한다. 이 전통 속에는 문자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과, 반대로 완전히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참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sup>8)</sup>

그는 당대의 유럽을 천박하다고 진단하고 참다운 형이상학이 발붙일 곳 없는 중대한 정신적 탈선에 시달리는 “서양의 지적 실추”를 언급하고 있다. 서양은 단지 물질적 우월성만을 지닌다. 서양은 허위의 가치로 살고있다. “진진과 발전에 대한 믿음, 변화와 동요에 대한 사랑, 민주주의적이며 휴머니즘적 몽상들이 그것이다.”<sup>9)</sup> 어떠한 치유책이 있을까? 구원은 전통으로의 회귀에 있다. 이 회귀는 동양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엘리트에게만 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동양의 영향”이 확실한 구원의 수단이 될 것이다. 케농이 보기에 동양인들은 아무도 위협하지 않으며 “어떠한 개종 권유도 하지 않으며 단순하게 각자 조용히 있기를 바란다.”<sup>10)</sup> 그렇다면 「세상의 왕(Roi du Monde)」-그리스도-은 정의와 평화를 기본적 속성으로 삼는 바 어찌 화합이 불가능 하겠는가?<sup>11)</sup> 그러므로 동양의 기본적 가치들은 현 세계가 복귀해야만 하는-그렇지 않으면 구

8) René Guénon, “Le Roi du Monde”, in *Les Appels de l'Orient*, op.cit., pp.211-212.

9) Réponse de René Guénon à l'enquête, in *Les Appels de l'Orient*, op. cit., p.279.

10) Ibid., p.278.

11) Ibid., p.215.



원이란 없다—기독교의 근원인 우리의 중세적 전통의 가치들과 완전히 화합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이며 카톨릭 신앙을 담고있는 케농의 논문은, 모든 민족주의와 우월성 주의로부터 해방된 상호성 내에서 서로에게 풍부함과 문화의 교류를 확인하면서 「동양의 호소」에 부응한다.

마씨스와 케농의 대립적인 견해 사이에서, 끌로델의 태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중세인, 르네상스인, 비타협적인 카톨릭 신자인 끌로델은 마씨스가 작성한 앙케이트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한다. “동양과 서양은 피차간에 완전히 침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인간은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동양의 영향은 프랑스 예술과 사상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마씨스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아니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험이 아닙니다.

—당신은, 동양에 대해 우월성을 부여하는 서양의 가치는 무엇이라 봅니까?

—그것은 유일하게 기독교죠.<sup>12)</sup>

아시아 사상에 대한 판단과 사념이 풍부한 끌로델의 작품 여기저기에 동양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작품 속에서 동양의 다양한 종교 경향을 구별, 분류하는 능력을 발휘하였고 예를 들어 도교, 심지어 일본 불교에 까지도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다. 모순적인가? 사실 시인 끌로델은 복잡한 감각의 소유자이다. 그는 인도 불교를 비난하고 신교와 마찬가지로 이를 격렬히 배척했다. 그는 동양의 이상숭배를 비난한다. 끌로델은 중국인들이 “예수의 적”<sup>13)</sup>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신을 참으로 잘 대해준 이 민족을 야만족이라 치부한다. 끌로델은 다른 종교에 비해 기독교의 영적인 우월성을 확언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종교라도 이해하고자 하였다. 모든 타종교 역시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불교는 사탄이고 동양은 완전히 이교

12) Réponse de Paul Claudel à l'enquête, in *Les Appels de l'Orient*, op. cit., pp.263-264.

13) Paul Claudel, *Cinq Grandes Odes*, troisième Ode, *Oeuvre poétique*,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1967, p.256.

의 세계다. 그러나 그는 성경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다. 물질적 가치로 치장된 현대 서양은 동양의 지혜를 본받고 연구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종교적 관점에서 「비단 구두(Soulier de satin)」와 「죄도 쓸모가 있다(Même le péché sert)」라는 제목에서 보듯, 오귀스트의 사상을 나름대로 해석한 바에 비춰보면 아시아가 이교도로 남는다는 것은 진실되지 않는 것으로 비쳐졌다. 신비하게도, 악이나 사탄마저도 신께 영광을 돌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카톨릭에 대한 끌로델의 생각은 완전히 전통적인 것인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결정적으로 시인 끌로델은 일종의 계시를 통해,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양과 서양에 유사성이 있음을 알았다.

끌로델 역시 마씨스와 케농처럼, 서양문명의 위협과 피해를 폭로하고 기독교의 최상위를 인정하였으나 동양에 대해 경멸만을 일삼는 자들에는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우주의 발견자, 「동방의 이해」의 작가가 보기에, 이는 무지와 몰이해의 결과이다. 그는 「동양의 부름」에서 확고하게 대답하고 있다. “「동방의 이해」에 대해 우리의 감수성을 새롭게 하는 것과 우리 문화 일반의 충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끌로델은 케농이 지적한 것과 동일한 길을 제시한다. 우리의 일반적인 문화와 감수성은 그리스-라틴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의 유산이다. 1923년 일본에서 개최된 학술회에서 끌로델은 프랑스적인 전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는 우선 마씨스가 신비스럽게도 은폐한 다민족주의의 견해를 적용하고 국민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민족적 요소를 강조한다. “프랑스는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상호전이와 혼합을 제외하고도 다른 이십여 민족으로 형성된 국민이다. 이렇듯 오늘날 프랑스인들은 이질적인 이십여 민족의 후계자들이다.”<sup>14)</sup> 문화가 가장 다양하게 구성된 이러한 국민이 외적으로 동양 혹은 다른 어떠한 영향에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 끌로델의 진정한 이념 중 하나는 문화와 문명의 상호보족인 것이다.

그를 모순된 카톨릭 신자라고 비난해야 할까? 그의 사상에는 어떠한 모호성도 없다. 단지 개종 이후 도덕론의 단계를 고려함이 옳다. 그것은 더할 나위없이 기독

14) Paul Claudel, “Un regard sur l'âme japonaise”, Oeuvres en prose,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1965, pp.1120-1121.

교의 미덕이다. 다른 한편으로 천주교는 진짜 종교이다. 모든 인식은 이 이중적인 근본적인 신념에서 온다. 모든 것은 신의 창작이며 마땅히 인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끌로델의 전작품은 카톨릭 신자의 유일하고 진실된 조국, 즉 우주를 찬양한 것이 된다.

전 세계가 그 무대 배경인 「비단구두」는 우주적 특징이라는 비전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이 극에서 16세기 사람인 주인공 동 로드리그(Don Rodrigue)에게 두 명의 동양인 하인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름에 여러 상징적 의미가 깃든 일본인 화가 다이부추(Daibutsu)와 중국인 하인이다. 세 사람 사이에서 교환되는 대사는 「동양의 부름」에서 전개되는 싸움과 질문으로 야기된 동-서양의 대화에 대한 응답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에게 유혹적일 경우에 한해서만 논박되는 원초적인 사상을, 신자 로드리그가 아시아인으로부터 듣는다는 것은 매우 활력적인 일이다. 일본 것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하고 로드리그는 “나는 마술에 걸려들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만일 당신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분명하게 의도를 밝히는 다이부추에게 “내가 그대의 사제나 은자들의 고문서를 판독한 이 긴긴 겨울날에 정말 이해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까”라고<sup>15)</sup> 고백한다. 프랑시대사인 끌로델은 자기와는 다른 종교의 사제와 은자들의 신비스런 문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아마도 정열을 로드리그에게 투사했다. 동양의 전통 안에서 발견되는 교훈은 두 단어 즉 침묵과 부동성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서양의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는데 더 없이 좋은 덕목이다. 그러나 끌로델은 카톨릭 신자인 주인공의 소명의식을 되찾아 상기시킨다. “친구 다이부추여, 내가 바다 두개를 건넜고 환경에 의해 유럽대륙과 절연된 것은 침묵과 부동성을 위한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나는 카톨릭 신자이며, 인간성의 모든 부분이 합쳐지고 이단 속에서 살 권리를 믿는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은 더는 혼자가 아니요! 나는 여러분에게 유일한 아버지로써 이 모든 형제들, 즉 여러분이 마음에 들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관계없는 이 모든 형제들과 신의 총체적 말씀 그리고 세계를

15) P. Claudel, *Le Soulier de satin*, Théâtre II,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1956, p.856.

가져온 것입니다.”<sup>16)</sup>

상호이해와 공감, 자비심에 입각한 끌로델은 각 국민의 고유한 문화, 그리고 보편성에 도달한 전통적 가치 위에 유일하게 삶에 의미를 부여할 뿐 아니라 기쁨도 주는 기독교 신앙이 첨가되길 원했다. 시인 끌로델은—이 점에 있어서 그는 기독교 작가를 대표하는 작가로 간주되었다—사제와 견줄 수 있는 신성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어에 의한 창조를 통해 그는 신을 모방하고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재현한다. 시적 행위는 바로 찬양이다. 모든 기독교 문학은 낙관적인 문학이다. 이 문학은 불안과 절망을 배제한다. 이는 기독교 문학이 드라마를 도외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만 최소한의 사건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무한히 현명하고 훌륭한 작가에 의해 쓰여진 매우 흥미로운 드라마의 배우와 같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행위는 피로 물들지만 또한 항상 장엄하다. 왜냐하면 종교는 단지 우리의 신성한 주인의 참된 제자로서, 드라마의 가장 고귀한 형태인 희생을 죽음속에 투여해야 하기 때문이다.”<sup>17)</sup>

기독교적 영감을 받고 전통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불문학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개괄적 통찰을 통해 작품의 형식적 가치를 초월하는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20세기에 걸쳐 인간과 그 운명을 세속화하고 불안과 정적의 세계에 영혼을 가두어 영혼을 훼손하려는 경향의 문화가 확립된 바, 겉으로 반동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보편적 휴머니즘의 가치로 확실하게 무장된 작가들은 서양의 문명에서 사향과 퇴폐, 실패만을 보는 자들을 부인한다. 정치적으로 서양은 파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적으로 서양은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적어도 역사의 부침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20세기 동안 카톨릭 교회가 주된 덕성으로 이룩한 신앙, 희망, 사랑이라는 덕을 왜곡됨 없이 그대로 유지한 단 하나의 길이었다. 과학과 신앙이 점점 일치되는 이즈음에 기독교 문학은 미래의 문학으로 마땅히 권유할 만하지 않은가?

16) Ibid., p.857.

17) P. Claudel, “Religion et Poésie”, Oeuvres en prose, op. cit., pp.64-65.